

146명 참가優勝 송순갑 서명희

포천그린골프클럽 제3주년 골프대회



4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포천그린골프클럽(대표 임재학, 연합회장 정진성)은 회원간의 단합과 친선도모와 경기력 향상을 위해 11월5일 산정호수 동베르 CC에서 제3주년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146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쾌리오방식으로 경기를 진행했으며 송순갑(남), 서명희(여) 회원이 우승을 차지했다.

이날 경기에서는 특히 불우이웃돕기 기금 모금함을 설치해 자유롭게 모금한 결과 40만6천원을 모았으며 임재학 대표가 59만4천원을 더해 100만원을 포천시에 기탁하기도 했다.

특히 400여명의 회원 중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원들이 자사 홍보를 위한 각종 경품을 제공해 참석한 회원들에게 푸짐한 경품을 제공했다. 또 주니어 연습생에게도 이번 대회에 참가하게 하여 격려함으로써 꿈나무 육성에 크게 이바지하기도 했다.

포천에서 유일하게 골프연습장이 매년 경기력 향상을 위해 대회를 마련하는 그린골프클럽은 그린넷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각 지부의 活性化 전략 세우 노력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제20차 정기회의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단장 박혜자)은 제20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홈페이지 활용의 건, 독자배가 운동의 건, 창간 제18주년 기념식 참가 및 준비의 건,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및 도움을 줄 사람 추천의 건 등을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최무열 전무이사는 "여러 가지로 바쁜 일정 가운데 포천신문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석해주신 주부명예기자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포천에 꼭 필요한 신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박혜자 주부명예기자단장은 "먼저 신문을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신문을 홍보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며 "특히 각 지부장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주부명예기자단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창간18주년 기념식에 참가를 부르기로 의결하고 오는 11월 21일 오후3시에 만나 집중적인 참가 연습에 나설 계획을 세웠으며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도와줄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추천하여 실제적인 불우이웃돕기 운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43번 국도 신호등 많아 교통체증 원인

11월8일 개최한 본지 조사위원회에서 밝혀



포천신문 조사위원회는 11월8일 제27차 정기회의를 갖고 오는 12월 15일 송우웨딩홀에서 개최되는 포천신문 창간 제18주년 기념식에 경비 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 포천신문 창간 18주년 기념행사의 건을 상정해 논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2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 기타안건 토의에서는 국도 43호선에 신호등이 너무 많아 교통체증은 물론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조사위원회가 직접 신호등 개수 등을 조사하는 의견이 제시됐다.

회의에 앞서 이상일 조사위원장은

은 "초겨울 문턱으로 들어서고 있는 요즘 감기 조심하기 바란다"면서 "오는 12월15일 개최되는 포천신문 창간 18주년 기념식에 관한 많은 의견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호열 발행인은 "차가운 날씨에 정기회의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고맙다"고 말하고 "요즘 매스컴에서는 대통령 선거와 국제유가 폭등이 집중 다뤄지고 있고 포천지역에서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어 포천신문은 16만 포천시민을 대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이상일의 탐조(探鳥) 이야기 ③1 황여새[Bohemian waxwing]

"팔배나무에 황여새가 주렁주렁"

겨울철이 되면 여새과의 새중 황여새와 황여새 등 2종이 혼성을 이루어 불규칙적으로 찾아오는데, 이들이 좋아하는 팔배나무 열매와 산수유 나무열매가 많이 열린 지난 겨울에는 다른 해 보다 많은 개체가 여러 곳에서 관찰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황여새가 황여새보다 조금 더 귀하다고 하는데, 이번 탐조에서는 황여새가 황여새보다 개체수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았습니다.

황여새와 황여새의 가장 큰 특징은 꼬리 끝이 노란 것은 황여새, 꼬리 끝이 붉은 것은 황여새입니다.



황여새의 영명은 Bohemian Waxwing이고 황여새는 Japanese Waxwing입니다. 여기서 왁스(Wax)란 초(蠟)를 말한다.

황여새의 날개 깃에는 실제로 왁스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몸길이는 18~20cm정도이며 깃은 분홍빛을 띤 갈색으로 덩치는 분홍빛이 도는 밤색, 턱밑과 목, 눈선은 검정색이고 꼬리끝이 노란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지난 동지살달 그믐날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三成洞)에 있는 선정릉조선 선종과 그의 계비 정현왕후(貞顯王后) 윤씨(尹氏)의 능에 황여새 20여 마리와 황여새 10여 마리가 혼성을 이루어 관찰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서둘러 달려가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나오니 벌써 탐조인 10여명이 모여 황여새의 아름다운 자태를 감상하고 있었다.

그 중에는 평소 탐조를 하면서 자주 만났던 반가운 탐조친구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반가움에 간단한 수인사를 마치고 활영준비를 하는데 벌써 조정수로 심어놓은 팔배나무에 황여새와 황여새, 직박구리, 개똥지빠귀 등, 박새 등이 날아와 나무가지에 주렁주렁 매달려 날개를 빠르게 퍼덕이며 정신 없이 빨간 열매를 쪼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몰려든 새들에 게도 서열이 있는지, 직박구리가 먼저 날아와 열매를 따먹고 날아가면 그 뒤를 이어 황여새와 황여새 무리가 날아와 열매를 따먹고, 또 그 뒤를 이어 개똥지빠귀 등이 날아와 열매를 따먹고 근처의 숲으로 날아가곤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들이 모두 함께 모여 열매를 따먹기도 하더군요. 나무열매가 많을 때는 서로 싸우지 않고 열매를 따먹다가 열매가 줄어들면 그때는 서열대로 먹이활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초를 서고있던 1마리가 위험을 느끼고 날아오르면 다른 무리들도 일제히 날아가 근처의 나뭇가지로 날아가곤 합니다.

황여새는 물을 먹을 경우에만 땅위에 내려오며 땅위에서 강충 강충 뛰어다니며 물을 먹다가 위험을 느끼면 나무꼭대기로 날아가 가지에 앉아 있곤 합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회귀철새인 여새과의 새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많은 차량의 소음과 행인의 발걸음도 새들의 먹이 활동을 방해할 수는 없어 보였습니다.

생태 선진국에서는 도심지의 공원이나 가로수를 식재할 때 철새의 먹이특성까지 고려하여 설계를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전문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회귀철새인 여새과의 새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포천신문 조사위원장 이상일 017-705-0994

용정웨딩홀·뷔페

사랑과 행복을 듬뿍 담은 고품격 웨딩공간

각종 연회행사 전문 용정웨딩홀·뷔페는 귀하의 소중한 하객분들을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소중한 뜻깊은 가족모임, 용정웨딩홀·뷔페로 오십시오. 가족의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하는 용정의 가족잔치에는 두배의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여유로움이 있습니다.

- ♣ 회갑/칠순/돌/백일
- ♣ 최신 실내 촬영장 개설
- ♣ 쾌적하고 세련된 실내 분위기
- ♣ 정갈하면서도 다양한 메뉴

